

지역 매아리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구절초 축제 홍보활동 펼쳐

정읍 구절초 꽃 축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위원들이 20일 서울 용산역을 방문하여 축제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번 홍보활동에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8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하였으며, 귀성객과 서울·경기지역의 내·외국인들을 상대로 축제홍보 팸플릿과 관광책자, 기념품 2,000여점을 배부하며 축제 홍보에 열정을 쏟았다.

이복형 위원장은 "정읍 구절초 꽃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12만㎡의 소나무 숲에 지천으로 펼쳐진 구절초 꽃밭을 산책하며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정읍 구절초 꽃 축제는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며 12만㎡의 소나무 숲을 가득 메운 은은한 색과 향의 구절초를 만끽하는 축제로 지난 2016년 60만명, 2017년 70만명이 방문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가을철 감성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국노래자랑이 '정읍'에 온다

제20회 정읍시문화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KBS전국노래자랑 정읍시편 공개녹화가 다음달 20일 전북과학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국민 MC 송해 씨의 진행으로 열리는 전국노래자랑은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이자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공개녹화에 앞서 정읍시는 10월 12일까지 노래자랑에 참가할 희망자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예선은 오는 10월 18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펼쳐지며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은 20일에 실시하는 공개녹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다음달 20일에 펼쳐질 공개녹화에는 진성과 김국환, 유지나, 진해성, 조정민 등 유명가수들이 출연하고 행사장 주변 정읍시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정읍의 맛과 멋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한바탕 웃음 잔치가 되어 시민들에게 건강한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권익현 부안군수가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있다.

'세계잼버리' 성공 위해 달린다

권익현 부안군수, 미국·영국 벤치마킹... 성공 방안·개최 후 활용방안 모색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3년 제26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진행 중이다.

권익현 군수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전북도 세계잼버리추진단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19년 제24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인 미국과 스카우트 발상지이자 2007년 제2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인 영국을 잇

달아 방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미국 벤치마킹을 통해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인 부안 새만금의 잼버리 부지 조성 아이디어 개발에 집중했다. 이어 영국을 방문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 방안과 스카우트 활성화 방안, 개최 후 잼버리 시설 활용방안 등을 모색했다.

권익현 군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이 부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앞

로도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배울 것"이라며 "2023년 부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은 제24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스카우트연맹이 공동 주관으로 2019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12일 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지역에서 개최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부안군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종합상황반을 비롯한 재난·재해상황 반, 도로·교통상황 반, 생활환경·상하수도상황 반, 보건·의료상황반 등 8개 분야별 전담

반을 편성하여 상황관리와 군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연휴기간 귀성객과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재난대비 상황실을 운영, 24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를 정장수거,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등 비상 진료체계 운영, 탁물 등 상수도 민원에

즉시조치 및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상황에 대해 발생시 즉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안군은 21일까지 추석을 맞이하여 부안군 513개 전 마을에 대하여 전직원이 홀몸 어르신 방문, 경로당 점검 및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추석맞이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넉넉한 풍요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신성장 동력... 지속가능 발전 토대될 사업 찾아라"

정읍시, 328개 시책 발굴

구체적 실행계획 등 논의

정읍시가 민선7기 시정 비전인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실현을 위한 신규 시책 발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정읍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신규 시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소득성장 주도사업,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필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유시장이 주재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인태 부시장을 비롯한 35개 실과소 부서장들은 국·단·소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굴된 328개의 시책을 검토했다.

검토에 앞서 각 국·단·소별로 내년에 추진할 신규 시책과 공약사업, 국가예산 확보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을 보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시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모색했다.

주요 신규시책은 ▲수제한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 ▲스포츠클럽 전국대회 유치 ▲문화재 발굴 체험장 조성 ▲정읍농악 전승회관 이전 ▲독거노인 응급 비상 알리미 구축 ▲술터 달빛 생태숲 조성 ▲미세먼지 저감·대응 사업 ▲도시관광 활성화 숲길 네트워크 조성 ▲목재 이용 문화체험장 조성 ▲유아숲 체험원 조성 ▲아이의 눈썹장 설치·운영 ▲중앙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꽃무릇 만개한 선운사서 즐기자'

음악회 · 버스킹 · 전통놀이 · 문화체험 등 다채

꽃무릇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고창 선운사에서 문화축제가 열린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일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현대, 보은, 이운행사, 산사음악회, 버스킹공연, 전통놀이·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꽃무릇시화전, 경판이문식의 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산사음악회는 개막을 알리는 국악공연 전통타악연희 '굿(GOOD)'을 시작으로 동서양 클래식의 만남 퓨전국악 하나연과 팜페라 한아름, 뮤지컬 갈라그룹 봄날, 재즈와 탭 22일부터 8월 2일까지 12일 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지역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선운문화제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전통과 상생'을 주제로 선운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지역민들과 향유하고 지역축제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선운문화제가 열리는 선운사는 고창의 가장 유서 깊은 전통 사찰이다. 봄에는 동백, 여름은 계곡, 가을은 꽃무릇과 겨울의 설경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꽃무릇이 아름다운 9월, 선운사에서 열리는 선운문화제는 고창 지역 문화의 정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두승산 청정메밀축제가 열리는 고부면 메밀꽃 축제장 사진.

정읍 청정메밀축제 오늘 개막... 순백의 메밀꽃 향연

24일까지 고부면 메밀꽃 축제장서

'뜨거운 태양이 머물던 영주산 소금밭에 찾아온 달빛사랑'을 주제로 제12회 두승산 청정메밀축제가 오늘부터 24일까지 고부면 메밀꽃 축제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두승산 청정 메밀축제위원회·고부문화권보존사업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 후원한다. 순백색의 메밀꽃을 테마로 열리는 청정메밀축제는 21일 첫날 정읍시립국악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기관단체장, 출향인, 지역주민이 함께 모인 가운데 개막식을 가질 예정

이다. 옛 농경문화 체험으로는 벼 탈곡과 방아 쪼개기, 맷돌질기, 떡메치기, 새끼꼬기 등이 운영되며, 고리걸기, 투호놀이 등의 민속경기도 운영된다. 또한 청정 메밀을 주재료로 사용한 메밀과전 등 먹거리 부스와 지역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운영하여 메밀과 흑미, 홍미, 잡곡, 고구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아간에는 밤이 쫄는 토끼와 사슴 형상의 유등도 설치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퓨전국악공연, 고부중학교 학생공연, 밸리댄스, 트로트 가수공연, 트럼펫 공연, 시민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이어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